

한국 독서치료 발전사 및 생애주기별 연구 동향 분석

정명자, 김민주, 김애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Analysis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Korea and Research Trends by Life Cycle

Myoung-Ja Jeong, Min-Ju Kim, Ae-Jung Kim*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요 약 최근 심리적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이나 상처 치유와 같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서치료는 독서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를 미국과 비교하고,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차후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를 이용하여 최근 10년 동안(2012-2021)의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독서치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문제점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 대상 연구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차후 노인층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문화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수행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한국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mental healing, such as emotional and trauma healing helping to decrease psychological anxiety and mental stress, has been growing. Among the various mental healing techniques, bibliotherapy is a mental health treatment that is performed through reading.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Korea compared to the same in the Americas and its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humans were analyz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its improvement in Korea. Academic databases (RISS, KISS, and KCI) were used to collect research from 2012 to 2021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humans. Subsequently,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bibliotherap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positive effects of bibliotherapy such as improving children's self-esteem or enhancing adolescents' overall school life. The results also point out that various media were not used in programs of bibliotherapy. Hence,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specialized bibliotherapy programs with more diverse groups of people and use various media in the futur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n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bibliotherapy programs.

Keywords : Bibliotherapy, Research Trends, Life Cycle of Humans, Development History, Korean Bibliotherapy

*Corresponding Author : Ae-Jung Kim(Kyonggi Univ.)

email: kaj419@kgu.ac.kr

Received October 1,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November 1,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최근 한국은 우울증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1].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신건강 현황조사(2019)에 의하면, 1년간 우울감, 불안, 심각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62.2%였고, 평소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46.7% 수준이었다[2]. 정신건강 문제 유형은 심각한 스트레스(37.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3%),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30.2%),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27.9%) 순으로 나타났고, 증가하고 있는 여러 자살 원인 중 정신과적 증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인들이 심리적 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점차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미디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자살, 살인, 가정불화와 자녀 또는 배우자 학대, 비행청소년 등은 학벌주의 사회에서의 학업 경쟁이 가져온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빚어낸 인성교육의 부재가 야기한 문제라는 보고가 있다[4].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심리적 불안,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이나 상처 치유와 같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독자가 도서의 인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치유 받는 독서치료는 다양한 정신 건강 치료법 중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3,5].

독서(reading)는 문자가 발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인간의 생활을 존속시킨 활동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는 지적인 기능이다[6]. 즉, 책을 읽는 행위이면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지적인 과정으로 인격의 수양, 정서의 함양, 건문의 확장을 통해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킨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7,8]. 이처럼 독서는 인류 문명과 함께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현대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9].

이와 같이 책은 고대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지만, 독서치료(Bibliotherapy)라는 용어는 그리스의 책, 문학(biblio)과 치유(therapy)에서 유래된 단어의 조합으로 목사이자 수필가였던 Samuel McChord Crothers(1916)가 새로운 학문 분야임을 알리면서 1916년에서야 최초로 사용되었다[10].

16세기 프랑스의 의사 Rabelais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독서를 처방했으며,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Benjamin Rush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일환으로 독서를 추천했다[11,12]. 18세기 말 유럽과 영국에서는 독서가 정신질환 치료에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많은 정신병원에 도서관이 설치되기도 하였다[13]. 책과 독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이 바로 독서치료가 되면서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치료의 보조수단으로 읽기 자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4].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서치료가 심리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던 것에서 발전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5-17].

Zaccaria와 Moses가 문학작품이 독서치료에 사용되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1970년대 들어 읽기와 쓰기를 통한 문학치료의 특성이 독서치료에 포함되었다[16]. Berry(1978)는 독서치료가 시, 단편소설, 개인 일기 등 사용 가능한 모든 문학작품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치료자와 참여자가 문학 작품들을 이해하고 나누는 상호작용기술임을 강조하였고, 현재까지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18]. Jones(2001)은 독서치료는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책과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정신치료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2.1%에 달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2.2%에 그치고 있다[2]. 그에 반해 독서치료는 정신건강서비스 치료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대안적 방법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20,21].

현대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으나, 여전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발달적 독서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2,23]. 또한 해외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나 비교분석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를 미국과 비교하고,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찾고, 차후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생애주기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생애주기별로 연구된 프로그램 주제는 무엇인가?’이다.

1.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를 미국과 비교하고, 생애주기별로 한국 독서치료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독서치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최근 10년(2012-2021) 동안 발표된 독서치료 관련 석사,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수집하였다.

‘독서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검색어로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KISS(한국학술정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국내 논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된 경우 내용이 좀 더 상세한 학위논문을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고, 각각의 논문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된 연구는 제외하였다. 1차 검색에서 학위논문 258편, 학술지 논문 166편이 검색되었고, 이중 중복되거나 독서치료와 관계없는 논문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 논문은 학위논문이 193편, 학술지 논문이 67편으로 총 260편이었다. 그중 주제나 연령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252편이었다.

2. 본론

2.1 미국과 한국의 독서치료의 발전사 비교

2.1.1 미국

일찍이 독서치료를 시작한 미국의 독서치료의 발전사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미국의 독서치료는 1800년대 초반, 정신질환자에게 책을 추천하거나 독서치료의 원칙에 대한 책이 저술되는 정도였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국가기관에서 도서관 서비스가 시작되었다[24]. 독서치료라는 용어는 1916년 McCord Crother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25].

1920년대에는 여러 대학에서 독서치료 훈련 프로그램이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최초의 독서치료 훈련 프로그램은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도서관학과에서 수행되었다.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에서는 5년 과정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나 매우 적은 학생만 참여했다. 1940년대에는 시몬스대학과 덴버대학에서도 도서관학과에서 독서

치료 과정을 개설했다[26].

1924년부터 1958년까지 Tuskegee의 재향병원에서는 참전 군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향군인병원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전문의와 의학사서가 협력하는 형태로 독서치료가 사용되었다. 1939년에는 ALA Hospital Division 주도로 독서치료특별위원회 구성되었다. 1955년에는 The Place of Bibliotherapy in a Hospital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병원이 독서치료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임이 알려졌다[27].

1937년 Elizabeth Pomeroy에 의해 재향병원 62곳의 환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독서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28].

1941년 돌랜드 의학사전(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 1941)에는 신경질환 치료를 위해 책을 선정하고 독서하는 것이 독서치료라고 정의되어 있다[29].

1950년 Shrodes, C가 최초로 독서치료 관련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이래 독서치료 관련 논문은 400여 편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졌다[25].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서치료가 심리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던 것에서 발전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15-17]. 재향군인국은 1900년부터 1966년까지 환자들을 위해 제공했던 독서치료용 도서 참고문헌 목록이 담긴 We call it Bibliotherapy를 발행하여 미국 독서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30]. 1961년 병원과 도서관 협회(ALA)에서는 웹스터 사전(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1)의 정의에 따라 정신의학 분야에서 치료 보조수단으로 읽기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31].

1970년대에는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와 독서치료사의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0년 Scabassi는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독서치료가 활용되는 전문 분야를 일반의료, 정신의학, 교육분야 등으로 분류하였고, 독서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치료를 암시하지만, 예방목적으로도 활용되었음을 밝혔다[32]. 1978년 독서치료 연구자인 R. J. Rubin은 Bibliotherapy Sourcebook과 Using Bibliotherapy 등의 책을 발간하면서 독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책을 읽은 후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25,33]. Bordart (1980)는 독서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치료처럼 큰 가치가 있

음을 인정하면서도 독서치료사에 대한 기본자격에 대해 논했다[34].

1980년 Cornett과 Cornett는 독서치료가 독자에게 정서적, 인지적 영향을 모두 미치며 누구에게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깊게 자리 잡은 심리적 문제를 가진 환자를 위한 것은 아님을 밝혔고, 독서치료에 사용할 책을 선택하기 위한 등급 시스템을 개발했다[35]. 1986년 Hynes & Hynes-Berry는 독서치료 중 시치료 분야의 교과서와 같은 책을 집필하였다[36]. 1987년 Lenkowsky는 독서치료에 대해 리뷰를 하였으며, 정서적 변화나 인격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독서를 활용하는 것이 독서치료라고 정의 내렸다[37].

1990년대 이후부터는 독서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등장하여, 2001년 Jones은 독서치료를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책과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Floyd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기 조력 도서를 읽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38-41]. 1970년대까지는 심리학 분야에서 독서치료의 연구 비중이 높았는데, 80, 90년대에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교육학 분야의 연구 비중이 높아졌다. 여전히 독서치료 연구는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점차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의 연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31].

이런 흐름에 맞춰 O'Brien과 Daley(2011)는 독서치료를 특정 문제를 치료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라고 하였으나, Pardeck은 독서치료가 다른 치료법의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만성통치약이 아니라고 경고하였다[42, 43].

이와 같이 미국 독서치료는 초반에는 종교 차원에서 시작되어, 중반기에 들어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차츰 정립되어 갔고, 최종적으

Table 1.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America

Year		Contents of development history
1800s	1811	Recommendation of books for treatment of psychiatric patients (Rush B.)
	1846	A book on the principles of bibliotherapy and its application published (Galt J. M. II)
1900-1949	1904	First use of books for treatment of psychiatric patients in the hospital (Jones E. K.)
	1916	The first emergence of the term, bibliotherapy (Crothers S. McC)
	1920s	First bibliotherapy training program implemented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24	Books used for psychological treatment of veterans (Delaney S. P.)
	1937	First empirical study of bibliotherapy conducted (Pomeroy E.)
	1939	Special Committee on Bibliotherapy formed by ALA Hospital Division
	1941	First definition of bibliotherapy by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
1950s	1950	First PhD dissertation in bibliotherapy presented (Shrodes C) Full-scale implementation of studies on bibliotherapy
	1952	Reference list for bibliotherapy for the Veterans Affairs Hospital published
1960s	1960s	List of references for bibliotherapy in the Veterans Administration issued Classification of bibliotherapy into clinical and educational bibliotherapy
	1961	Bibliotherapy begins used as therapeutic adjuvant in psychiatr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0s	1970	Classification of the fields of bibliotherapy (Scalabassi) - general medicine, psychiatry, education, etc.
	1978	Bibliotherapy source book, using bibliotherapy published (Rubin R. J)
1980s	1980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bibliotherapists (Bordart) Development of the grading system of bibliotherapy books (Cornett & Cornett)
	1987	Lenkowsky: Bibliotherapy is the use of reading to produce affective change and to promote personality growth and development
1990s	1990s	The emergence of multiple definitions of bibliotherapy
	1991	Ouzts: Bibliotherapy is to help adapt to various everyday problems
	1998	Pardeck & Pardeck: Bibliotherapy is the use of books to help solve problems
2000s	2001	Jones E. H: Bibliotherapy is the use of books and stories to treat people with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sorders
	2003	Floyd M: Bibliotherapy is the reading activity of self-help books to address psychological problems
2010s	2011	O' Brien & Daley: Reading materials of bibliotherapy are provided in the form of instruction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of the specific problem area
	2013	APA dictionary of clinical psychology: Bibliotherapy is a form of treatment that uses systematic reading materials

로는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적 차원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서치료의 목적에 따라 정의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1.2 한국

한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 독자들을 위로하고 현실의 고통을 작품을 통해 승화시킨 독서치료 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원시 부족사회에서 부족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 주술을 사용했던 ‘구지가’와 ‘해가’ 같은 고대 가요들과 조선시대의 ‘박씨부인전’, ‘홍부 놀부전’ 등의 문학작품은 넓은 의미의 독서치료라 할 수 있다[44].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사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에 최초로 독서치료가 소개된 것은 1964년 유중희가 Margaret C. Hannigan의 ‘The Librarian in Bibliotherapy: Pharmacist or Bibliotherapist?’를 ‘도서관과 비브리요세라피’로 번역해서 발표하면서이다 [45]. 1968년 김병수가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에 관한 연구라는 국내 최초의 독서치료 관련 학술 논문을 통

해 독서요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에는 주로 문제성 소지자나 비행 청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연구가 미미하게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46].

1970년대 후반에 손정표나 한상완 등이 독서요법이라는 명칭으로 독서치료의 원리를 소개하였고, 적용 방법도 모색하였다[47,48].

1980년대에는 정신요법과 독서요법 번역서가 다수 발간되었고 1983년 윤달원에 의해 상담 심리치료에 독서요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49]. 1988년 황백현 등이 독서치료의 외국 사례, 정의, 역사, 기본적 원리 등을 소개한 저서만 있을 뿐 여전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50].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비행 청소년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고, 독서요법이 정신과 입원환자의 증상별 행동과 질병 예후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독서치료가 일부 분야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development history of bibliotherapy in Korea

Year		Contents of development history
1960s	1964	First introduction of bibliotherapy through the translation of the book ‘The Librarian in Bibliotherapy’ (Yoo J. H.)
	1968	Kim B. S. : first used the term bibliotherapy through his reading therapy book for personality disorder treatment
1970s	1970s	A study on personality disorder treatment of problematic people and juvenile delinquents conducted
	1978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with the term reading therapy through a book on the methodology of reading guidance (Sohn J. P.)
1980s	1980	Books related to bibliotherapy and psychotherapy for juvenile delinquents research and patients published
	1981	Translated books on psychotherapy and bibliotherapy published (Park H. Y.)
	1983	Bibliotherapy applied to counseling psychotherapy (Yoon D. W.)
	1988	Introduction to Reading Psychology published (Hwang B. H.)
1990s	1990s	Research on various subjects conducted 2 Ph.D dissertation papers and 4 master’s thesis papers.
	1990	Yoon D. W. : presented the first Ph.D dissertation on bibliotherapy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ts
	1995	Interests in bibliotherapy from the field of psychiatry through publication of ‘Reading and Healing’ by Mind Medicine Laboratory
	1996	Hwang U. B. : Defined bibliotherapy as guidance skills through his book, ‘Reading Therapy’
	1999	Bibliotherapy subspecialty meetings commenced under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KSCL)
2000s	2001	Bibliotherapy Research Association (Kim H. H.) introduced bibliotherapy through a bibliotherapy book Introduction of bibliotherapy service driven by members of ‘Psychotherapy laboratory through reading’
	2002	Professional course of bibliotherapy established
	2003	Korea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founded and the first issue of the journal, ‘Research of Bibliotherapy’ published
	2004	First implement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bibliotherapists and license issued by Korea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2004-2005	Reading list series for bibliotherapy by context published by Korean Library Association Research on bibliotherapy and development of bibliotherapy programs centering the library

1990년 윤달원이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독서요법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된 이후, 비행청소년, 정신과 환자, 아동,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Table 2)[51].

1995년 심의학연구소에서 ‘읽으면서 치유한다’는 책이 발간되면서 정신의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독서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52]. 1996년 황의백은 독서요법을 인격적인 적응 면에서 문제를 지닌 사람에게 책을 읽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력을 정상적으로 키워내는 가이드스(guidance) 기술이라고 정의 내린다[53].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독서치료의 실증적 연구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5].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회원을 중심으로 독서치료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다[52]. 2001년에 독서치료의 정의, 과정, 방법, 독서치료자와 내담자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저서를 발간하였다[53]. 2002년에는 독서치료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고, 2003년에는 한국독서치료학회가 발족되면서 학회지 발간 및 독서치료사 민간자격증 시험이 최초로 실시되었다[54-56]. 2004년-2005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을 발간하였으며[57,58], 이후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독서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5]. 황금숙(2005)의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독서치료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문헌정보학 분야였으며, 교육학, 유아·아동학, 문학, 상담심리학 분야가 그 뒤를 이었으며, 주제는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59]

2.1.3 미국과 한국의 비교

일찍이 독서치료가 시작된 미국과 한국 독서치료 발전사의 특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Table 1과 2에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종교적 영향으로 환자들에게 성경과 종교 서적을 처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잦은 전쟁(1, 2차 세계대전)으로 군인병원의 발달과 함께 환자들을 위한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지면서 일찍이 독서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60]. 1920년대부터는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독서치료 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 이론, 효과, 필요성 및 상황별 독서목록이 만들어져 있다[31].

반면, 한국의 경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학 영역보다는 교육과 심리학 분야에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독서치료가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61].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로 문헌정보학의 경우 독서치료의 정의나 의의 등 이론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발전은 미비하였다[59].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상황별 독서목록이 발행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책을 선정해 주는 정보 제공형 독서치료로 발전해왔다[62]. 이후 임상과 연계되면서 다양한 매체가 사용되는 특징을 보여 대상과 주제가 폭넓게 확대되었고,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체험형 독서치료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44]. 그러나 독서 관련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운영하는 미국이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과 같은 교원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이나 사설기관에서 단기적으로 독서치료전문가가 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후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내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공인자격증의 확대가 요구된다[54,63,64].

2.2 한국 독서치료의 생애주기별 연구 동향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최근 10년간 한국 독서치료의 생애주기별 연구는 총 260편이었는데, 주제나 연령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면 총 252편이었다.

생애주기 기준은 첫째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유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였다[65]. 즉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세 이하를 유아동, 8-24세를 청소년, 25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하였다. 노인에 대한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하였다[66].

생애주기별 연구 분포는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동은 10%, 청소년은 67%, 성인은 21%, 노인은 2%로 나타나 청소년, 성인, 유아동, 노인 대상 순으로 독서치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층의 증가와 더불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67,68].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노인의 우울증 증가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를 보이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은 아닌가 싶다[69]. 생애주기 상 청소년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유아동 대상 긍정적 인성이나 인격 형성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청소년층의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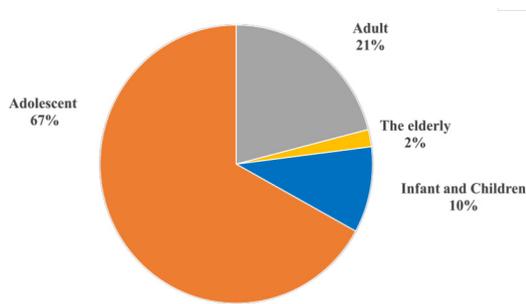


Fig. 1. Research trends by life cycle of humans on bibliotherapy over the last 10 years(from 2012-2021)

2.2.1 유아동

유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존감 등과 같이 자아와 관련된 연구는 10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7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6편, ADHD, 공격성, 문제행동 등과 같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2편이었다.

유아동 대상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동의 자아존중감, 배려,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주장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중순(2012)은 독서치료가 유아동의 정서 및 지능 향상을 통해 자기인식, 자기조절,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71]. 유아동 대상 가족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증진, 양육공감,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천주영(2017)은 독서치료를 통해 유아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과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72].

유아동 대상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유아동의 또래관계, 규범인식, 사교성, 친사회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진영(2018)은 또래집단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73].

유·아동 대상 특수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ADHD, 공격성,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심리변화에 대한 독서치료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이었다. 박옥화(2016)는 ADHD 아동에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충동성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공격적 의사소통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해 ADHD 아동의 정서장애 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74].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보면 글이 익숙하지 않은 유아동은 그림책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모와 함께 대상이 되는 연구에서는 그림책이나 일반 도서와 함께 영상, 모래놀이, 노래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었다. 그림책을 통해 유아는 자신을 동일시하여 타인에 대해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윤은경(2013)의 보고가 있듯이 유아동 대상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이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75].

2.2.2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연구의 67%였으며, 이중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가 60%를 차지해 청소년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등과 같이 자아와 관련된 연구는 75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10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58편, ADHD, 불안, 분노 등과

Table 3. Researches on bibliotherapy for infant and children

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10 articles including J. H. Ahn(2012)	Self-esteem, Consideration, Self-respect, Self-efficacy, Self-assertion, Cognitive ability, Intelligence improvement, Language ability etc.
Family relationship	7 articles including J. Y. Chun(2012)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child interaction etc.
Social relationships	6 articles including J. Y. Park(2018)	Peer relationship, Norms cognizance, Interaction, Sociability, Pro-sociality, Social-emotional competence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2 article including O. H. Park(2016)	ADHD, Aggressiveness, Problem behaviors etc.

25 articles (10%) / 252 articles

Table 4. Researches on bibliotherapy for adolescent

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75 articles including S. You(2012)	Self-esteem, Ego-resiliency, Self-efficacy, Self-expression, Happiness, Ego-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maturity, Responsibility, Spirituality etc.
Family relationship	10 articles including E. H. Park, H. J. Kwak(2016)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child interac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etc.
Social relationships	58 articles including H. S. Jung, M. A. Cho(2020)	Peer relationship, School life adaptation, Sociality development, Personal relations,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ltruism, School life satisfactions, Peer victimization, Disability acceptance, Person perception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26 articles including G. S. Hoang <i>et al.</i> (2013)	ADHD, Anxiety, Anger, Depression, Stress, Game addicti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Slow-learners etc.

169 articles (67%) / 252 articles

같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25편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자기표현력, 자존감, 행복감, 자아정체성, 진로 의식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자아탄력성은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 인내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주변자원을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유선(2012)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가 자아탄력성을 향상시켰고, 자아도 건강해져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76-7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과의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증진, 부모자녀 의사소통, 상호작용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박은혜와 곽현주(2016)는 그림책과 노래라는 두 매개체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도한 프로그램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켰다고 하였다(7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사회성 발달, 교우관계, 대인관계, 군생활 적응, 이타성, 학교생활 만족도, 장애수용태도, 타인 이해 등 가장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다. 정호선과 조미아(202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일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으며, 학교 규칙 준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8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수장애(신체, 정서, 인지, 심리)와 관련된 연구도 25편이나 되었는데, 불안, 우울, 분노, 게임중독, ADHD 등에 대한 독서치료의 영향을 알아

본 연구들이었다. 황금숙 등(2013)은 게임 과몰입이나 게임 중독인 초등학생에게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져 자신의 심리적 상황을 잘 이해하여 타인을 배려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일반 도서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그림책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책과 영상을 함께 사용해서 시각적 매체를 주로 활용한 연구가 3편이었고, 그 외 시, 성경책, 그림그리기, 연극 등 여러 매체들이 다양하게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다.

2.2.3 성인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자존감 등과 같이 자아와 관련된 연구는 17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16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4편,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18편이었다. 중년여성의 우울을 위한 인지행동 독서치료 단일 사례연구와 같이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특수 사례 연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특수장애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행복감, 자아효능감, 정체성 확립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자존감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Table 5. Researches on bibliotherapy for adult

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18 articles including M. J. Kim(2012)	Happiness, Self-efficacy, Self-esteem, Ego-identity, Establishing identity etc.
Family relationship	16 articles including J. H. Kim(2020)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Parent-child communication etc.
Social relationships	C. S. Jung(2012)	Personal relations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18 articles including M. N. Lim, M. W. Lee(2018)	Depression, Schizophrenia, Alcohol addicti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Empty nest syndrome, <i>Hwabyung</i> etc.
53 articles (21%) / 252 articles		

연구 비중이 가장 컸다. 김민정(2012)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주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2].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증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정희(2020)는 부모 교육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 부모의 행복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가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까지도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44].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춘순(2013)은 독서치료를 통해 대인관계가 어려운 기독청년들이 대인관계 개선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3].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외상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임명남과 이명우(2013)는 심한 우울상태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시행한 결과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를 인지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변환시키는 등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84].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역시 일반 도서였으며, 다른 대상에서는 없었던 사이코드라마나 역할극, 색채심리 등을 함께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드라마 안에는 시, 동화, 서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치료에 관심이 없는 경우나 집단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며, 가장 효과적인 매체중의 하나로 독서치료와 함께 이용했을 때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백형진(2017)의 보고가 있듯이 독서치료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외에 영화, 성경, 시, 미술과 같이 청소년층에서 사용했던 매체들도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85].

2.2.4 노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자아와 관련된 연구는 1편,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는 0편,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1편, 치매 등과 같은 특수장애 관련 연구는 1편이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아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 자아통합감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예희(2012)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연구가 노인의 자기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6].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 연구에서는 인권존중, 젠더의식, 시민성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경옥(2019)은 노인을 위한 독서치료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자신감과 활기를 경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87].

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경증치매와 노인 우울증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성희(2019)는 독서치료를 통해 경증치매 노인의 우울과 불안감이 감소되었고, 인지능력도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88].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에서 사용한 매체를 살펴

Table 6. Research on bibliotherapy for the elderly

Factors	Author(Year)	Keyword
Ego	Y. H. Han(2012)	Self-esteem, Ego-integrity etc.
Family relationship	-	-
Social relationships	G. U. Lee(2019)	Respect for human rights, Gender consciousness, Citizenship etc.
Disorders (Physical, Emotion, Cognitive, Psychology)	2 article including S. H. Jang(2019)	Dementia, Depression etc.
4 articles (2%) / 252 articles		

보면 모두 일반 도서를 매체로 활용하여,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다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있지 못했다. 노년기를 준비하는 과정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매체의 장점까지 제시하여 노인의 위한 효율적인 독서치료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책과 함께 시, 옛날이야기, 노래가사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88].

3. 결론

독서는 인류가 가꾸어 온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의 하나로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유용한 행위이며, 정서함양에 효과적인 매개체로, 독서를 통해 스스로 감동하고 깨우칠 수 있다[89,90]. 이를 활용한 독서치료는 빠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법 중 하나다. 현대인이자 누구나 예외 없이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파생된 급변한 사회변화로 인해 다양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사회문제가 전 생애가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독서치료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91].

최근 10년간 수행된 한국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 간에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되는 유아동기에 부모와 함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을 때 유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9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독서치료가 청소년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및 학교생활의 상호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있는 게임중독과 핸드폰 중독

도 독서치료로 게임을 줄이고 수업의 집중력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의 독서치료는 핵가족화 사회인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및 양육태도 개선, 부모의 행복감 증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성인기 독서치료에서 사용된 매체로는 사이코드라마, 역할극, 색채심리 등의 복합적인 도구 외에 영화, 성경, 시, 미술 등이 사용되는 등 생애주기 중 가장 다양하게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본 연구 결과 생애주기 중 청소년, 유아동, 성인, 노인 순으로 연구 결과가 많았고, 노인 대상 연구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2020년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인구의 15.7%로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93].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내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증가한 노인 세대는 육체적·정신적·건강의 조화를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므로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독서치료와 같은 정서활동 프로그램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94]. 차후 노인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된다면 노인 자살을 경감시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에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매체나 프로그램의 영역 등에 대해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생애주기별로 연구가 치우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차후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매체와 프로그램 구

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바란다.

정리해보면 1964년 한국에 독서치료가 처음 소개된 이후 한국 독서치료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병원 중심으로 독서치료가 시작된 미국과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생애주기별로도 어떤 특정 계층(청소년층)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31]. 또한 생애주기 대상 맞춤형 매체 활용 프로그램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좀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독서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수행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 독서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내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공인자격증의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한국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1(Health Status : Causes of Mortality). OECD, 2021 [cited 2021 July 02], Available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accessed Aug. 23, 2021)
- [2]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S 2019, Available From: https://www.ncmh.go.kr:2453/ncmh/board/commonView.do?no=3411&fno=112&depart=&menu_cd=04_01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 (accessed Aug. 23, 2021)
- [3] J. E. Baek,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9, No.1, pp.5-26, Mar. 2018. DOI: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005>
- [4] K. S. Moon,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 role of self-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5, pp.285-299, Oct. 2008.
- [5] J. E. Baek, "A study on relation analysis between book and category in bibliotherapy catalo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6, No.2, pp.217-239, June 2015.
- [6] A. N. Lee, *The Study on Effects of Reading Motivation, Reading amounts and Reading Hierarchy based on Different Reading Media on the Reading Satisfaction and Reading Preference in Multimedia Age*,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p.8-9, 2017.
- [7] M. W. Noh, "Reading and writing: The conceptual change and its implications for literacy educa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No.28, pp.9-51, Dec. 2012.
- [8] J. Y. Yun, "A critical review of reading as creation-convergence proces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No.35, pp.79-109, May 2015.
- [9] Y. R. Kim, *A Study on Intercultural Knowledge Education Using Korean Modern Poetry: Focused on Comparison of Chines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Learner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6-35, 2019.
- [10] S. McC. Crothers, "A literary clinic". *Atlantic Monthly*, Vol.118, No.3, pp.291-301, Mar. 1916.
- [11] J. M. Schneck, "Studies in bibliotherapy in a neuropsychiatric hospital",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Vol.23, No.6, pp.316-323, Dec. 1944.
- [12] B. Rush, Sixteen introductory lectures, to courses of lectures upon the institutes and practice of medicine, p.455, Bradford and Innskeep, 1811, pp.1-455
- [13] B. J. Salup, A. Salup, Bibliotherapy: An Historical Overview. ERIC, 1978 [cited 1978], Available From: <https://eric.ed.gov/?id=ED200896> (accessed Aug. 9, 2021)
- [14] B. Doll, C.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RIC, 1997 [cited 1997], Available From: <https://eric.ed.gov/?id=ED411790> (accessed Aug. 9, 2021)
- [15] M. Lejeune, Discussions sur l'alphabet phrygien, p.29, dell'Ateneo, 1969. pp.19-47
- [16] H. A. Moses, J. S. Zaccaria, "Bibliotherapy in an educational context: Rationale and principles", *The High School Journal*, Vol.52, No.7, pp.401-411, July 1969.
- [17] R. M. Tews, Progress in bibliotherapy, p.359, Academic Press, 1970, pp.57-62
- [18] F. M. Berry, Proceedings of the Fourth Bibliotherapy Round Table, Bibliotherapy Round Table, 1978.
- [19] E. H. Jones, Bibliotherapy for bereaved children: Healing reading, p.144,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1, pp.1-144
- [20] J. G. Kim, G. S. Kim, E. Y. Kim, Reading heals mental illness, p.431, Hanwol, 2009, pp.1-431
- [21] M. W. Lee, "A group education program that conceptualizes bibliotherapy cases using reading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otherapy for symposium*, Journal of the Korean Bibliotherapy, seoul, Korea, Vol.7, pp.39-58, Oct. 2009.
- [22] D. H. Lee, M. H. Kim,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in Korea: Based on published articles on bibliotherapy(2008-2017)", *Journal*

- of *Bibliotherapy*, Vol.10, No.2, pp.73-88, Dec. 2018.
- [23] M. R. Choi, "Current status of bibliotherapy and its application to counsel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2, No.1, pp.81-98, Apr. 2010.
- [24] M. T. Moody, H. K. Limper, *Bibliotherapy: Methods and materials*. p.16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1, pp.1-161.
- [25] R. J. Rubin, *Bibliotherapy sourcebook*, p.416, Oryx Press, 1978, pp.1-416.
- [26] N. M. Panella, "The patients' library movement: An overview of early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organized libraries for hospital patients" *Bulleti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84, No.1, pp.52-62, Jan. 1996.
- [27] B. K. Gubert, "Sadie Peterson Delaney: Pioneer bibliotherapist" *American Libraries*, Vol.24, No.2, pp.124-129, Feb. 1993.
- [28] E. Pomeroy, "Bibliotherapy-A study in results of hospital library service," *Medical Bulletin of the Veterans Administration*, Vol.13, pp.360-364, Apr. 1937.
- [29] W. A. Newman Dorland,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 p.1647, W. B. Saunders Company, 1941, pp.1-1647.
- [30] C. G. Hendricks, J. E. Hendricks, L. L. Cochran, *American Reading Forum Volume XIX-Literacy conversations: Family, school, community*, p.209, Yearbook of American Reading Forum, 1999. pp.117-130
- [31] D. McCulliss, "Bibliotherapy: Histor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Journal of Poetry Therapy*, Vol.25, No.1, pp.23-38, Mar. 2012.
DOI: <https://doi.org/10.1080/08893675.2012.654944>
- [32] S. H. Scلابassi, "Literature as a therapeutic tool: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bibli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27, No.1, pp.70-77, Mar. 1973.
- [33] R. J. Rubin,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p.256, Oryx Press, 1978, pp.1-256.
- [34] J. Bodart, "Bibliotherapy: The right book for the right person at the right time, and more!" *Top of the News*, Vol.36, No.2, pp.183-188, June 1980.
- [35] C. E. Cornett, C. F. Cornett, *Bibliotherapy: The right book at the right time*, p.45,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1980, pp.1-45
- [36] A. M. Hynes, M. Hynes-Berry, *Biblio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p.274, Westview Press, 1986, pp.1-274
- [37] R. S. Lenkowsky, "Bibliotherapy.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21, No.2, June. 1987.
- [38] D. T. Ouzts, "The emergence of bibliotherapy as a discipline", *Reading Horizons*, Vol.31, No.3, pp. 198-206, Sep. 1991.
- [39] J. A. Pardeck, J. T. Pardeck, *Children in foster care and adoption: A guide to bibliotherapy*, p.120, Greenwood, 1998, pp.1-120
- [40] E. H. Jones, *Bibliotherapy for bereaved children: Healing reading*, p.144, Jessica Kingsley, 2001, pp.1-144
- [41] M. Floyd, "Bibliotherapy as an adjunct to psychotherapy for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9, No.2, pp.187-195, Jan. 2003.
- [42] M. O'Brien, D. Daley, "Self-help parenting interventions for childhood behaviour disorders: A review of the evidence",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Vol.37, No.5, pp.623-637, May 2011.
DOI:<https://doi.org/10.1111/i.1365-2214.2011.01231.x>
- [43] J. T. Pardeck, "Using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with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Vol.67, No.3, pp.1043-1049, Dec. 1990.
- [44] J. H. Ki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Korean Enneagram Education Program Using Bibliotherapy for parents*, Ph.D dissertation, Sunmoon University, Asan, Korea, p.27, 2020.
- [45] J. H. You, "Library and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Vol.1, No.3, pp.133-139, June 1964.
- [46] B. S. Kim, "A study on bibliotherapy for personality therapy", *Educational research*, Vol.25, pp.12-15, Dec. 1968.
- [47] J. P. Son, "A review on bibliotherapy as a psychotherapy", *Library*, No.226, pp.33-42, Jan. 1978.
- [48] S. W. Han, "A review on youth reading guidance based on the principles of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Library Society*, Vol.3, pp.11-13, Mar. 1976.
- [49] D. W. Youn, "A technical study of life guidance counseling psychotherapy", *The Student Life Research report*, Vol.9, pp.51-62, Dec. 1983.
- [50] B. H. Hwang, *Introduction to reading psychology*, p.205, Book Culture, 1988, pp.1-205
- [51] D. W. Youn, *(The) Effect of Bibliotherapy on Self-concept of a Juvenile Delinquent*, Ph.D dissert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pp.1-49, 1990.
- [52] Psychological Research Institute, *Heals while reading it*, p.390, Mental culture publisher, 1995, pp.1-390
- [53] U. B. Hwang, *Reading therapy*, p.167, Bumwoo publisher, 1996, pp.1-167
- [54] S. G. Lim, "An analysis on bibliotherapy experiences of bibliotherapists in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7, No.2, pp.417-436, June 2016.
- [55] Korea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History*, Available From:
http://www.bibliotherapy.or.kr/new/sub02_02.php (accessed Aug. 20, 2021)

- [56] Y. O. Han,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7, No.1, pp.5-25, Mar. 2003.
DOI: <https://doi.org/10.4275/KSLIS.2003.37.1.005>
- [57] Korea Library Association, Reading list by situation (for bibliotherapy): Adult edition, p.137,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4, pp.1-137
- [58] Korea Library Association, Reading list by situation (for bibliotherapy): Youth/Children's edition, p.168, Korea Library Association, 2005, pp.1-168
- [59] G. S. Hoa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Korean bibliotherap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6, No.1, pp.117-130, Mar. 2005.
- [60] H. H. Kim, J. S. Suh, S. H. Kim, J. S. Kim *et al.*, Bibliotherapy, p.328, Hakjisa, 2001, pp.1-328
- [61] Y. S. Lee, "How to do bibliotherapy", p.258, Hakjisa, 2006, pp.1-285.
- [62] W. I. Jung,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ibliotherapy for Middle-Aged Women to Overcome the Empty Nest Syndrome*, Ph.D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pp.1-168. 2013.
- [63] G. C. Kim, "Applicability of bibliotherapy in a medical library", *Korean Medical Library*, Vol.32, No.1, pp.39-52, June 2005.
- [64] M. S. Lee,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the private certificates according to the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3, pp.181-202, Sep. 2009.
- [65]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Juveniles,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120&lsiSeq=218027#0000> (accessed June 30, 2021)
- [66]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ct on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30&lsiSeq=224921#0000> (accessed June 30, 2021)
- [67] W. K. Park, S. B. Le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maladjustment, problem gambling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impulsivity", *Journal of Youth Welfare*, Vol.23, No.2, pp.23-48, June 2021.
DOI: <http://dx.doi.org/10.19034/KAYW.2021.23.2.02>
- [6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Adolescent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7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accessed Sep. 2, 2021)
- [6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Suicide Prevention White Paper, p.279, Central Suicide Prevention Center, 2020, pp.56-90
- [70] C. K. Kim, M. H. Kim,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on a depression, daily stress, and self-esteem of depress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14, pp.75-105, June 2005.
- [71] J. S. Kim. *Effects of remedial reading program for children to emotion intelligence and social self-competence - with picture book reading as the center*, Master's thesis, Gaya University, Gimhae, Korea, pp.46-49, 2012.
- [72] J. Y. Chun,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Group Counseling on Communication, Empathy Ability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with Infants*, Master's thesis,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39-41, 2017.
- [73] J. Y. Park, *Development of a Bibliotherapy Program Using Picture Books to Improve Children's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pp.94-103, 2018.
- [74] O. H. Park, "A study on effectiveness of fairy tale treatment in alleviation of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Bibliotherapy*, Vol.8, No.1, pp.45-76, June 2016.
- [75] E. G. Yun, M. N. Lee, S. H. Park, "The effect of bibliotherapy program using the Anthony Browne's picture books on self-esteem and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Bibliotherapy*, Vol.5, No.1, pp.25-41, Dec. 2013.
- [76] H. K. Kang, "Family strengths and ego-resilience of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3, No.3, pp.93-102, Sep. 2005.
- [77] J. H. Block, J. Block,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p.293, Psychology Press, 2013, pp.39-101
- [78] S. You, *A Study of the Bibliotherapy Experience to Improve the Ego-Resilience in Adolesc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Korea, pp.80-84, 2012.
- [79] E. H. Park, H. J. Kwak, "Program Development of Singing Picture Book for Promotion of Communication in Family -Focused on satir theory-", *Journal of holistic mind body therapy*, Vol.3, No.1, pp.61-81, Apr. 2016.
- [80] H. S. Jung, M. A. Cho,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Based on Play oriented intera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31, No.2, pp.5-26, Jun. 2020.
- [81] G. S. Hoang, S. K. Kim, J. H.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Program to Overcome of the Excessive Absorption on Games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2, pp.93-111, June 2013.
- [82] M. J. Kim,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on the Self-Esteem of Housewiv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83-84, 2012.

- [83] C. S. Jung, "The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youths who have participated in group bibliotherapy due to interpersonal difficult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23, No.3, pp.239-280, Nov. 2012.
- [84] M. N. Lim, M. W. Lee, "A Single Case Study of the effect of Cognitive Behavior Bibliotherapy on the Depression of a Middle-Aged Woman", *Journal of bibliotherapy*, Vol.10, No.1, pp.25-44, Jun. 2018.
- [85] H. J. Back, *A Literature Therapeutic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ire Official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terature Therapy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152-157, 2017.
- [86] Y. H. Han, *Influence of Literatherapy based on Reminiscence by Using Picture Books on Self-Esteem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terature Therapy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81-88, 2012.
- [87] G. U. Lee, "A Study on Feminist Pedagogy for Gender Recognition of Elderly Women -Through the Reading Discussion of 'Fairy and the Woodcutter' Story", *Journal of bibliotherapy*, Vol.11, No.2, pp.113-133, Dec. 2019.
DOI: <https://doi.org/10.35398/job.2019.11.2.113>
- [88] S. H. Jang, *A study on reading materials of bibliotherapy for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Korea, pp.127-130, 2019.
- [89] S. Y. Lee, "Reading and reading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New Korean Language Life*, Vol.22, No.4, pp.37-47, Dec. 2012.
- [90] O. R. Koo, *(The) Effect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oungnam, Korea, pp.54-57, 2005.
- [91] Y. J. Ham, "The Influence of Childhood Parent-Child Attachment o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Spiritual Development", *Theology and Praxis*, No.53, pp.551-580, Feb. 2017.
- [92] J. Y. Noh, H. S. Hwang,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satisfaction on attachment formation with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1, No.1, pp.27-40, Feb. 2012.
- [93] KOSIS, 2020 Statistics for the elderly, [cited 2020 Sep. 28],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 (accessed Aug. 22, 2021)
- [94] S. M. Choi, S. K. Kang, "A study on domestic research trends of senior wellness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1, No.2, pp.513-523, Apr. 2021.
DOI: <https://doi.org/10.52660/JKSC.2021.27.2.513>

정 명 자(Myoung-Ja Jeong)

[정회원]



- 2011년 2월 : 평택대학교 특수상담학(독서치료전공) (상담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재학 중
- 2011년 1월 ~ 현재 : 한국발달독서치료협회 회장
- 2021년 2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겸임교수

<관심분야>

독서치료, 심리상담, 매체치료

김 민 주(Min-Ju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대체의학박사)
- 2016년 9월 ~ 2018년 8월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강사
- 2018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대체의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대체의학, 건강음식, 독서치료

김 애 정(Ae-Jung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가정학 학사)
- 1988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식품영양학과 (가정학 석사)
- 1992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 1993년 3월 ~ 2011년 8월 : 혜전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임상영양, 기능성식품, 식문화